



영진약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도전적인 '2045년 넷제로 전략'을 수립하였습니다.

영진약품은 KT&G그룹의 탄소중립 방향성에 발을 맞추고자 합니다.

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,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. 아울러 물 재이용 확대, 폐기물 매립 제로화(ZWTL), 친환경소재 전환 등 다양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

기후변화 대응

영진약품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, KT&G그룹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룹 차원의 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이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영진약품을 넘어서 KT&G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배출량 감축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영진약품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(SBTi :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)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, 비재무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, 글로벌 선진기업의 목표 및 경로 등 주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레이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겨 204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영진약품은 2030년까지 Scope 1+2 배출량을 42%(202년 대비), Scope3 배출량을 25%(2022년 대비) 감축하고자 합니다.

이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,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세운 영진약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태양광 발전설비, 고효율 설비 전환, 전력구매계약(PPA) 활용, i-REC 도입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
2023년 기준 영진약품을 포함한 KT&G그룹의 총 배출량은 약 21만 톤으로,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더 많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및 기존 설비 효율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
이처럼 영진약품은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으며, 통합적·체계적·전략적 접근으로 넷 제로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.

영진약품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실적 및 목표

